

집행부 감시·견제 충실...주민 참여 노력 미흡

목포시의회 상반기 의정 결산

6차례 시정질의·142건 조례 제정 초선들 연구하는 의회 만들기 앞장

전반기 마감을 앞둔 제10대 목포시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는 충실한 반면 주민 참여와 주민의견 수렴 노력 등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과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면에서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10대 시의회 전반기 동안 임시회 9회, 정례회 4회 등 활발한 의회 운영으로 6차례에 걸친 시정 질문과 142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 기간동안 총 6차례 시정 질문에서 48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공세를 펼쳤다.

회수는 여인두 의원이 6회로 가장 많았고, 이기정 의원 5회, 김휴환 의원·최기동 의원 각각 4회 등의 순이었다.

제정된 142건의 조례는 의원 발의 46건,



제10대 목포시의회의원들이 분회의에서 목포시의 미래가 걸린 주요 안건을 토론했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공>

위원회 발의 23건이었으며 시장 발의는 7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부 감시를 위해 두 차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복지위원회 75건, 관광경제위원회 67건, 도시건설위원회 42건 등 총 184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 건의 및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임시회를 활용해 목포시 역점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현장방문은

나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기간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심사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한 점도 성과다.

이와 함께 초선의원 7명을 중심으로 목

포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당면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된 '비파 의정발전 연구회'(회장 김귀선)는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의 롤모델이 됐다. 특히 강간배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힘썼다는 호평을 얻었다.

또 10대 시의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말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성호 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조례 제정으로 인사·공사와 관련한 잡음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반기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주민 참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김도형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 대표는 "제10대 의회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한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앞으로 지방의회 개방학교(아카데미)나 시민 강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에 노력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이난영 토크 콘서트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김숙자, 걸그룹 미미시스터즈 등과 함께 '목포의 눈물'을 열창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지역·세대 뛰어넘는 공감 이끌어내

'엘레지의 여왕'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목포가 낳은 국민가수를 기념하기 위해 목포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6일간 펼친 기념행사는 모두 6개.

유품 기획전시회를 비롯한 시민 대토론회, 김숙자 토크 콘서트, 관련 경연대회 및 모창 경연대회, 한정무대와 난영가 오제, 시립예술단체 합동 공연 등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 망향가'로, 해방 후에는 '호남의 애국가'로 불렸던 '목포의 눈물'이 목포를 뛰어넘어 지역을 잇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미미시스터즈는 "신세대 걸그룹도 함께 부르는 목포의 눈물은 슬프지만 희망이 느껴지는 묘한 힘이 있다"고 평했다. 바버렛츠도 "노래가 워낙 힘이 있어서 다양하게 불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난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는 "목포의 눈물은 그 자체가 워낙 탄탄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축제 형식으로 음악의 도시를 만들어 목포를 대중음악의 메카로 육성, 문화관광산업을 유치했으면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유정 단국대 교수는 "목포의 눈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특히 기념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한 '찬란히 빛나리 목포의 이난영' 공연은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국악원 등 6개 시립예술단체가 연합해 선보인 기획공연으로, 목포시립예술단체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이난영 생가 터를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원도심에는 '이난영 로드'로 명명된 탐방로도 개설될 예정"이라며 "이난영을 활용한 예향 목포의 문화관광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홍률 시장 잇단 특강...시민 스किन심 강화

박홍률 목포시장이 민선 6기 반환점을 앞두고 시민특강에 나서는 등 시민과의 스किन심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목포대 개교 70주년 기념 저명인사 릴레이 특강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대학생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를 펼친 데 이어 목포청년 100인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도 초청돼 '목포시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 시장은 두 차례 특강에서 ▲해상케이블카 설치 ▲대양산단 분양 ▲도시재생 선도사업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육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유달산 둘레길 조성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 단지 조성 등 목포 주요 현안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추진 과정과 당위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 30년 동안 해결 못한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마무리한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이자 보람"이라면서 "해상케이블카는 수산조선 위주의 목포 지역경제 중심축을 관광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2년 동안 시정을 이

포청년 100인 포럼 6월 정기시



'목포청년 100인 포럼'은 최근 특강에 나선 박홍률 시장에게 강사로 대신 앞으로 '바로 뛰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의미를 담아 운동화를 선물했다.

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처리였다"며

"1500억원의 대금 납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 이 동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권위와 체면을 버리고 사실상 시장직을 걸었다"고 뒷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목포대 강연에서 박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목포시의 다양한 장학사업과 관·학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여 자제와 대학이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5급 이상 공무원 일 열심히 한다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중

문서 기안·작성 건수 최다

목포시가 전남 서남권 자치단체 중 5급 이상 간부공직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로 분석됐다.

12일 전남서남권 9개 시·군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은나라 시스템 도입 이후 최근 1년(2015년 기준)동안 각 지자체 사무관(5급) 이상이 문서를 기안하거나 작성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목포시가 연평균 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문서생산 건수를 업무의 기본으로 판단해 업무평가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서기관 26건과 사무관 1963건 등 총 1989건의 문서를 생산해 연평균 800건의 문서를 기안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관 한명당 연간 10여건의 문서를 작성한 수치다.

이 기간동안 목포시 본청에서는 안전총괄과장(전신 안전행정과 포함)이 314건으로 가장 많은 문서를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자원순환과장 199건, 관광과장 135건, 스포츠산업과장 129건, 공민

복지과장 103건을 기록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부주동장, 용당2동장, 목원동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남권 지자체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사무관 이상 문서작성 건수를 살펴보면 A군의 경우 단 한 건도 없었으며, B군은 4건, C군은 5건에 그쳤다.

특히 목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서남권 8개 지자체 사무관이 작성한 문서의 총 합계도 585건에 불과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노후 도로 46개소 대대적 정비 나서

목포시가 노후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지역 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는 총 연장 347km이며, 이 가운데 46개소 20.3km는 심각한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목포시는 노후도로 46개소를 정비하는데만 총 4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청호시장 앞 석현로 등 10개소 2.6 km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포장을 완료했

다.

특히 목포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백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포대교를 잇는 고하로 구간은 목포를 대표하는 주요도로로 정비가 필요하지만 1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일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비가 시급한 19개소 7.9km는 올해 2차 추경예산에 17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나머지 22개소 18.9km는 내년까지 21억원 확보해 정비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국가주택보증인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優良 환경 아파트**입니다.

문의 **511-1141**

062-511-1141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핑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용접장,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선서버룸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추천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광주영업소 무등산업
T.062)371-7095, F.062)375-3409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발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영업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목신동)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례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